

교회 소식

- “열린 문으로(계 3:7-8)”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, 삶의 길이,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.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밤 9시 합심기도 기억해주시시오. 금요일 밤 8:30 - 9:30시 기도 다락방 열려있습니다.
- 맥체인 성경통독 추가신청 받습니다. 담임목사에게 문의하세요.
- 신청하신 T-Shirt가 나왔습니다.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Short sleeves with back number: \$20
 - Short Sleeves: \$12
 - Long Sleeves: \$16
- Volleyball Tournament
 - 5월11일(토) @ Rockland Lake State Park
 - 8시 셋업/ 9시 경기시작/ 11시 BBQ
 - 준비물: 야외용 의자
 - 음식준비를 위해 인원파악이 필요하니, 오실 분들은 반드시 교육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6월 9일(주일)은 야외예배입니다. 예배와 친교 후 성경퀴즈가 있습니다. 범위는 **사도행전 및 일부 바울서신**
- 오늘 친교를 섬겨 주시는 서영수 장로님 한주루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.

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

- 대표기도: 최병식 집사 (시편 1)
- 친교: 윤정숙 권사, 함인옥 집사
- 5월 안내: 박홍매 집사

예배 안내

- **주일예배:** 2:00pm, YouTube
- **English Service:** 2:00pm, Zoom
- **토요새벽기도:** 6am, 아몽크 본당
- **유치부 · 유년부 주일학교:** 2:00pm
- **중 · 고등부(Youth Group)예배:** 2:00pm, Zoom
- YouTube: www.youtube.com/user/Sekwangchurch
- Zoom ID: 939 020 5125/Passcode: Sk (EM/Youth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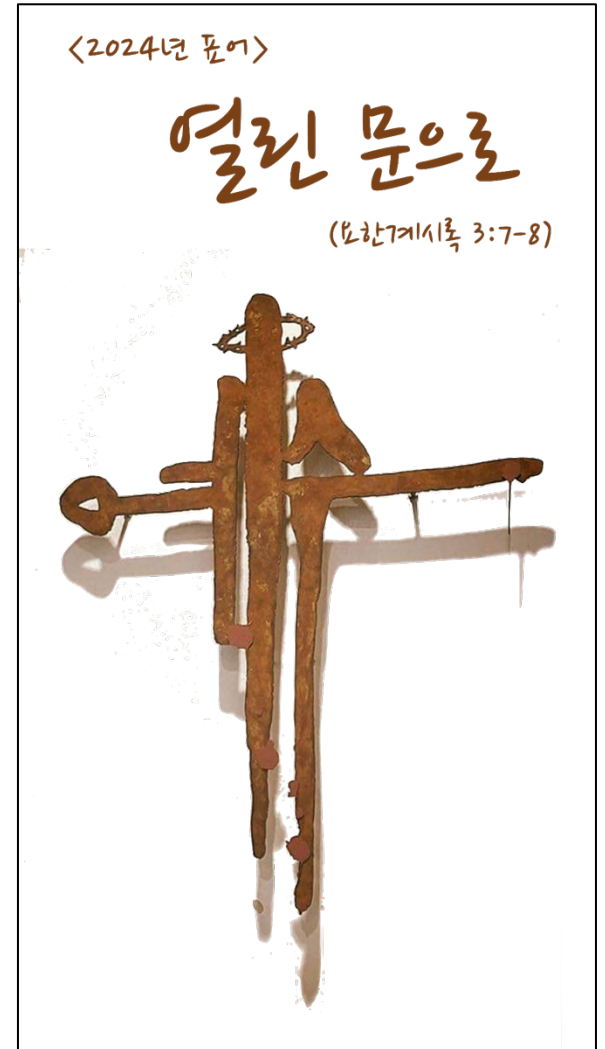
섬기는 사람들

- **담임목사:** 이민영
- **시무장로:** 김동수, 서영수
- **교육부 전도사:** Edwin Kim
- **지휘자:** 장효종 / **반주자:** 이현주

기도

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,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,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-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,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.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,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
-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
- 불의와 탐욕, 공포와 혐오,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
- 캄보디아 Paul Lee, 터키 Joshua Kavak, 1 국 장이삭, 혼두라스 최문재, 베트남 김승훈,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. WEC 코리아 이정석,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



주소: 448 Bedford Road, Armonk, NY 10504

전화번호: (914) 874-3606

Email: nyskch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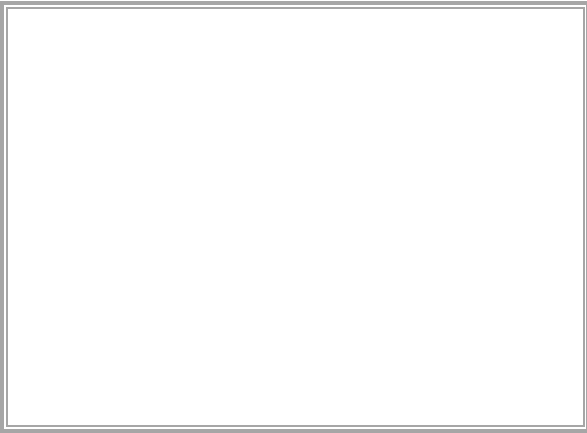
Homepage: www.nysekwang.org

YouTube: www.youtube.com/user/Sekwangchurch



Order of English Service

<2:00pm>	Presider: Anderson Choi
Opening Praise-----	Together
Call to Worship -----	Together
Worship & Praise -----	Together
Confessional Prayer-----	Together
Apostle's Creed -----	Together
Offering -----	Together
Prayer-----	Pastor Edwin Kim
Word of God-----	Acts 4:23-24a, 31 ----- Joseph Kim
Sermon -----	“You Need Your People” -- Pastor Edwin
Reflection Prayer-----	Together
Lord's Prayer -----	Together



Memo

주일 예배 순서

<오후 2시>	인도자: 이민영 목사
예배를 위한 기도 -----	인도자
Worship Meditation	
*예배로의 초대 -- “찬양하라 내 영혼아” -----	다함께
Call to Worship	
*신앙고백 -----	다함께
Apostle's Creed	
*찬송 ----- 488(539) “이 몸의 소망 무언가” -----	다함께
Hymn 151(138) “만왕의 왕 내 주께서”	
대표기도 ----- 시편 98 -----	최성국 집사
Prayer	
찬양대----- “폭풍우 지날 때까지” -----	세광찬양대
Choir	
봉헌기도 -----	인도자
Offering Prayer	
성경봉독 ----- 골 1:21-23 -----	인도자
Word of God	
설교 ----- “복음의 빛 가운데” -----	이민영 목사
Sermon	
인사 및 광고 -----	인도자
Greetings & Announcement	
*찬송 ----- 180(168) “하나님의 나팔 소리” -----	다함께
Hymn	
*축도 -----	이민영 목사
Benediction	
*일어나 주십시오 (Congregation Standing)	

지난 주 말씀

복음의 빛 가운데 (골 1:21-23)

우주만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. 전에는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으나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

되었습니다. 장차 흠이나 책망할 것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

죄를 깨닫는 것은 예민한 성격이나 철저한 반성, 바른 교리로 되지 않습니다.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, 그 말씀의 빛 아래 우리의 현실이고, 마땅하고 유일한 반응입니다.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예민한 과민반응이거나 꾸며낸 겸손이기 십상입니다. 결국은 “회개했도라”는 자기의입니다.

우리는 의인이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(불가능합니다),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(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). 그 육체의 죽음으로 입혀 주신 거룩한 의의 옷과, 받아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변명과 공로는 얼마나 초라합니까? “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!” 그 사랑에 안겨 아들 되는 것입니다. 종 노릇 하려는 반성과 “겸손”으로 먹을 것이나 얻고 산다면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죽은 아들인 것입니다.

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. 예수의 피는 우리 죄과를 없앨 뿐 아니라,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해결합니다. 의로우신 진노를 없애고 용서하셨는데,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의 죽음으로만 그렇게 되었습니다.

그 거룩하신 공의와 한없는 자비 앞에 무슨 공로를 주장하며, 어찌 경외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최선을 살 수 있겠습니까? 타협하고 굳어진 교리도, 어쩔 수 없다는 변명도 다 세상과 육신의 기준입니다. 전통과 교리와 우리끼리 도달한 타협이 아니라, 얼핏일지라도 위로부터 비추인 은혜의 밝은 빛, 복음의 밝은 빛으로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봅시다.

그 빛과 그 빛을 보고 산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이 교회 역사를 이뤄왔습니다. 남미의 산골에도 예루살렘의 빈민가에도 빛은 비추고 복음은 살리고 소망은 일으킵니다.

세광교회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에게 내보일 자량이 아니라, 복음의 찬란한 빛 가운데 부르신 그 영광을 위해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,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,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지는 교회,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,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기를 소원합니다.